발언대

친환경 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김 금 수
옥성코리아(주) 대표

1. 개 요

한국의 축산업 발전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 하다. 축산업 발전의 원동력은 그 무엇보다 한국이 산업화 시대로 접어 들면서 노동자들의 고단백, 고에너지에 대한 욕구가 대단함에 따라 이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해서 축산업의 눈부신 발전이 뒷받침 됐으며 이를 위한 축산 관련기관, 사료공장, 농장 즉 3위 일체가 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우수한 인적 자원,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축산농가 입장에서 자금 회전이 일반 농업에 비하여 빠르고 경제적 이익을 취할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현재까지의 모든 산업이 그러하듯이 대량생산 체제에 의한 양적 발전에 모든 것이 계획되고 실행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양적 중심에서 질적 중심으로 차별화 되어야 하고 실질 소득이 증대되어야 함은 물론 우리가 먹는 농축산물은 이제 인간의 건강에서 웰빙시대에 이어 종합 예술 차원으로 변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한 기초 사항들

인간이나 가축이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물, 공기, 사료(음식)는동물이나 사람이나 가장 기초적이라는 사항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대인은 보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건강한 음식(사료)을 위하여 오늘도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IT산업의 핵심적 인물이나 학식과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자연적으로 생산된 농 · 축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왜 현대과학은 자연보다 더 좋은물, 공기,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한다. 이는 인간이 자연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인위적으로 자연을 능가하는 방법과 연구가 한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친환경 축산이란 가급적 자연 상태의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가축을사육하자는이야기일것이다. 이에대하여가축사육에있어물과공기사료에대하여현황과문제점과대책을좀더세부적으로각각논해보기로하자.

가. 가축음용수에대하여알아보자

인간이나 가축의 구성은 대략 70%이상의 물이 존재하고 있음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항이라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1일 총 섭취량의 70% 이상인 물의 좋고 나쁨에 따라 그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좋은 물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산업화 시대에는 지표수든 지하수든 오염되어가고 있이 때문일 것이다. 즉 물이 오염되면 인간이나 동물은 병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축산농장은 대부분 지하수에 오염되어 있으며 동일 지점에서 10년전 50m 지하수 수질과 현재의 수질을 비교한다면 그 오염도는 엄청날 것이다. 이런 사정을 모를 농장주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축산농장 입장에서 현재보다 더 깊이 100m~200m 지점의 지하수를 얻기 위한 방법은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것뿐인가. 지하수를 이용한 축사내 급수관의 재질이 철재이든 PVC든 오염된 물이 통과되면 스케일과 이끼, 물때는 물론 음수투여를 위한 각종 영양제와 항생제 등의 찌꺼기가 급수관의 오염을 가중시킴은 물론 병원균의 증식처로 둔갑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현실에서 우리는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필자 역시 과거 사료 공장 근무를 해보아서 농장 현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예시"로 A, B 농장에서 사육한 돼지의 품종이 동일하고 동일 회사의 사료가 공급되고 돈사 형태가 동일함에도 그 중 A농장에서 심한 상태의 설사 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료나 품종을 의심해야 되는가? 아니면 수질과 급수관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즉 사료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 함에도 관련 종사자들은 제일 먼저 사료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상황을 가끔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각 농장의 가축 음용수에 대한 오염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물의 오염문제는 가축의 소화기 계통의 질병의 진원지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며 생명체의 70% 이상인 물은 아직도 신비의 물질이다.

나. 축사내공기오염상태는어떠한가?

한국의 축산업이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것만큼 가축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의관련 약품 사용량 역시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사육 가축 대부분은 소모성 호흡기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경우 필연적으로 수의약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호흡기 질병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좁은 면적의 한국실정에서 단위 면적당 사육수를 늘릴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가축은 심한 스트레스와 취로 인한 호흡기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환기 시스템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고 실행하고 있음에도 호흡기 질병이 감소하지 않고 더 심각해지는 이유는 항생제 등 약제에 대한 내성 문제와 오래된 축사시설, 약4개월 정도 지속되는 겨울이라는 한국 기후의 특성은 열손실문제로 인한 환기의 한계 즉 생산성 저하 우려 때문일 것이다.

동절기(12월~3월말) 돈사내부를확인한사람은이해할것이다. 아침일찍돈사내부를보면돼지의눈이 90% 이상 충혈되었고 가끔 돼지의 기침소리가 들리며사람이눈을뜰수없을정도의가스와악취를종종 목격할수있다. 해당농장에서환기를모를리없고약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며 동절기출하되는돼지의폐를도축장에서확인해보면 몇%를 거론키 어려울 정도의 상당수 폐가 출혈반점 또는농양이있음을확인할수가있을것이다.

호흡기 질병의 주요 원인은 돈사내 악취가 주범인

데 이는 암모니아 가스, 황화수소 등에 기인함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악취를 강제 환기 이외 근본적으로 대폭 감소시키는 방법 이전에 악취제거하는 노력과 연구가 있음에도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음을 개탄하기에앞서악취발생의근본원인을찾아야할것이다.

축사내 악취 발생의 주범은 가축의 배설물이다. 가축의 배설물은 유기물이다. 동 배설물은 유기물인 관계로 배설일로부터 일정시간 경과시 부패가 진행된다. 부패는 악취를 동반하며 모든 질병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부패를 방지, 예방하고 발효시킬 것인가 이다.

발효방법중 혐기성 발효는 악취를 수반하는데 호기성 발효는 악취를 대폭 감소시킨다. 축사내 배설물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호기성 발효를 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경제성이뒤따라야만이성공할수있다.

또한 발효를 억제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차단하여야 함에도 우리들은 항생제 등 약제사용과 소독수에 익숙해 있는데 이러한 약제들이 발효 억제 요인이 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축사내 가축 배설물의 발효 억제요인을 차단하거나 제거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호기성 발효 조치를 최소 1주일 1회 이상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하루 속히 경제성 있고 효과가 높은 천연 제제의 사용과 방법을 채택 실시해야만 200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악취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친환경 축산 실현농가만이 생존할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이라 생각된다.

다. 항생제등 약제에 의존치 아니하는 배합사료 개발은불가능한가?

세계적으로축산업에서항생제 등 약제의 오 · 남용은 심각하여 이에 대한 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 동안 양적 생산성과 효율에 집착하여 항생제 등이 가축의 질병, 예방과 치료는 물론 성장 촉진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하여 규제 조치를 하는 것인가? 축산농가나 축산 관련 종사자에게는 달갑지 않겠지만 소비자인 인간의 안전성 때문이라는데 대하여 반론이 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특히, 모든 상품이 그러하듯이 축산물 역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일부의 예가 되겠지만 어떠한 사람은 사람과 비교하여 왜 밥에다 항생제를 비벼먹는지 모르겠다. 즉 사료에 왜 항생제가 꼭 첨가해야 되는 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좋은 보약이라면 사람에게도 질병 예방과 치료 목적은 물론 어린 아이들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인간도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섭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음을 음미해야 할 것이다. 비유는 좀 심하지만 소비자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가고 있음에 우리는능동적으로대처할필요가있다.

이를 대처키 위하여 미생물 제제, 효소제 등 환경 친화적 제품이 계속 연구, 개발되고 있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약간만 언급코자 한다. 미생물제제, 생균제제는 잘못 이용되거나 개발되면 슈퍼 박테리아 보다 더욱 심각한 변종 미생물 출현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가끔 현장에 가보면 종전에는 사료효율, 증체율 중심에서 이제는 악취문제 해결과 분뇨처리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축산농가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적으로 물이 오염되면 소화기계통 질병, 악취문제는 호흡기계통 질병, 각종 약제의 오 · 남용은 축산물의 안전성과 분뇨 발효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일부 지도층 인사의 인식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은 친환경축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사회 일부에서 축산물 내 항생제 잔류문제가 거론되는 현실에서 정말 분뇨 내에는 항생제 문제가 안전하다고 이야기 할수 있을까? 2005년

1월부터 수의약품에 주로 의존하는 공장형 농장에서 나오는 분뇨는 유기농 인증농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는 국제규정에 의해서다. 분뇨가 갈곳이 좁아지고 있다.

3. 제안사항

상기 열거한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하면서 끝을 맺고자 한다.

가. 정부, 관련 연구기관의 조직이 수직적에서 기능적으로통합하여수평적으로운영되어야할것이다.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해서는 사료, 수의, 환경, 농산담당부서가 유기적 협조 체제가 이루워져야 함에도 자기 기능만 수직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총론은 누가 들어도 타당하나 각론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느껴진다. 시대가 바뀐 만큼 정부조직도 기능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축산업의 발달은 사료산업의 발달과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각자의 영역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사료공장도 친환경축산업에 과감히 투자해서상생의길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이제 사료 효율, 증체율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가축수의 증 · 감은 사료 공장의 판매량 증 · 감과 비례함에도 즉, 상생의 공동체임에도 이에 대한 사료 공장의 참여 의식도가 현재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축산 실현만이 차별화 축산물 생산은 물론 수입품에 대항할 수 있고 소비자인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자본력이 있는 사료 공장이 외면할 시기가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다. 정부는 배합사료 공장과 축산농가에 친환경사료나 친환경축산 실현의 당위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되“ 선 ”실현 “ 후 ”지원 방식을채택하여야할것이다.

환경친화형 자동차 개발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과 같이 친환경사료 개발과 친환경축산 실현 농가에도 지원 제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높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사료공장과 농장이 주저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친환경축산을 통한 친환경축산물은 국민건강에 기여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축산업은 이제 고용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사료공장과 B농장의 전년도 항생제 사용비용과 금액을 금년도에 얼마만큼 감소 시켰으며 축산농가의 분뇨 발생량의 몇%가 농지에 환원되었는가 하는 조사 문제는 자료와 노련한 공무원의 능력이 충분하므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왜냐하면 축산이 무너지면 관련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해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라. 축산 관련 종사자들은 이론과 원리 보다 경제성, 효과, 대중화에 보다 많은 연구 노력을 하여야 할것이다.

국제화 시대에는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 십 수년간 전문 연구기관 또는 연구 담당자의 결과가 이론과 원리에는 타당하지만 경제성, 효과, 대중화에 문제가 있다면 결론적으로 연구를 위한 연구 보고서에 불과할 것이고 환경 선진국에서 친환경 농축산을 실현하고 그 밖의 나라들에게 환경문제를 트집잡아 무역 보복과 까다로운 조건으로 우리에게 접근 할 것이 시기는 명확치 않지만 빠른 시간내에 닥쳐 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